해남미남축제

1월엔 바다를 몽씬 담아븐 해우국…7월은 통째로 묵어부러 통닭

‘해남의 맛’ 탁상 위에서 만난다

군,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소개한 음식달력 발간

“아따! 묵어야 살지라.”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남특산물을 활용한 계절음식을 이용한 내년도 탁상용 달력을 발간했다.

관광 달력은 멋들어진 지역사투리를 사용해 월별·계절별 어울리는 해남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포도시’ 1월에는 해남바다를 몽씬 담아븐 해우국, ‘긍께’ 2월에는 겁나게 보드랍고 묵직한 해남농주, ‘따수운’ 3월에는 해풍과 쑥떡쑥떡 게미지게 버무린 쑥떡, ‘아따’ 4월은 두륜산 산나물을 곁들인 허벌나게 신선한 채소를 즐기는 보리쌈밥, ‘여간 좋은’ 5월은 집나간 입맛도 돌려준다는 보리숭어, ‘기언치’ 6월은 해남 한우를 담아냈다.

이어 ‘워메’ 7월은 통째로 묵어브러 통닭, ‘징해’ 8월은 개안하게 청정바다를 땀뿍 품은 해남 뻘전복, ‘오진그’ 9월에는 겁나게 맛있구마 고구마빵, ‘옹삭한’ 10월은 혀끝에서 녹는 보드라운 삼치회, ‘귄있는’ 11월은 영양 땀뿍 낙지한우탕탕이, ‘욕봤소’ 12월은 해남 배추로 담근 짐치(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월별·계절별 어울리는 해남 음식을 소개한 음식 달력.

달력의 별지도 구성진 사투리를 이용해 웃음을 자아낸다. 쪼깐 쉬다 올랑께 찾지마쇼(휴가 중입니다), 아따 묵어야 살지라(식사 중입니다), 먼데 갔응께 지달리지 마쇼(회의 중입니다), 나 언능 오께라(외출 중입니다) 등 재미있는 문구로 장식했다.

게미진 음식달력은 2000부 제작됐으며 전국 여행관련 업체를 비롯해 해남군 향우회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해남만남’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배포한 결과 모두 소진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별·계절별 해남의 맛을 찰진 전라도 사투리를 활용해 음식으로 표현했다”면서 “달력을 보고 해남의 맛에 흥미가 생겨 해남관광에 한걸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대중음악 전당 유물 찾아요”

시, 31일까지 금융·경제 등 역사·상징 자료 구입

목포시가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가칭)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개관하기 위해 전시 유물을 산다.

근대 금융계 건축물인 호남은행 특성과 목포의 경제·생활상, 목포가 발전시킨 대중가요 흐름을 보여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1일까지 유물 매도 접수를 한다.

신청 자격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이다.

유물 매도 희망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목포시 수문로 32, 5층 도시문화재과) 또는 전자메일(ispark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문화재 전문가의 서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와 실물 심사를 한다.

도굴·도난·밀반입 등 불법 유물, 출처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물 매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만의 역사성과 예향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이고 희소한 유물을 확보해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차별화된 관광거점시설로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자주개항·국제도시·예향을 테마로 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1920～1980년대 수기 통장, 증권 등 금융·경제 자료와 이난영, 김시스터즈 등 목포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음악 관련 유물을 상설·특별 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범죄예방대상’ 장관상 수상

영암군이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 주최로 매년 공모를 통해 수상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 기업, 재단, 청소년 단체 등 사회 각계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영암군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확대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등 조도 개선사업, 외국인 집단거주 원룸촌 주변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역공동체 회복 및 범죄예방을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의회, 주민과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해양치유밥상’ 드시고 힐링하세요

군, 신지면 ‘모래뜰’ 1호점 지정
전복 떡갈비·색깔보리톳밥 등
완도산 제철 식재료 활용
매뉴얼 보급 음식점 확대

청정해역 완도산 해조류 등으로 꾸며진 해양치유밥상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3일 신지면 ‘해양치유 일번지 모래뜰’에서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미담외식창업연구소가 주관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 현판.

‘해양치유밥상’은 톳·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 전복 내장 소스, 톳·미역귀·색깔보리를 넣은 색깔보리톳밥, 제철 생선찜, 김국(갯국), 해조류 샐러드, 해조류 전(떡), 완도 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됐다.

식재료는 완도에서 제철에 나는 해조류 등을 활용했다.

해양치유밥상을 맛본 관광객들은 “완도의 청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 건강해진 느낌이다”며 “특히 다양한 해조류와 김에 싸 먹는 전복 해조류떡갈비 맛이 일품이다”고 호평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시작으로 해양치유밥상이 완도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희망 외식업체에 보급하고 해양치유밥상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영광군, 사망 참전유공 배우자에 명예수당

내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영광군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다가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미망인)가 대상이다.

단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우자 유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됐었다.

영광군은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5일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내년 1월부터 한국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20일 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신청은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배우자 유족수당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